

###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https://bit.ly/31moim))

###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성령으로 빚어지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 1.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모습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 사람 아담이 창조되었던 장면을 재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흠덩이요 티끌에 불과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 새로운 숨결 곧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신 이유는 그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 곧 교회는 새로운 창조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피조물입니다.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곧 영생이 부여됩니다. 그 영생의 핵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요 17:3).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선교적인 맥락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사명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첫 사람이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교회 또한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 세상 속으로 파송됩니다.

## 2.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

그동안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선교와 상관없이 가져온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의 영향 가운데 성령을 신비한 능력의 체험의 범주 안에서만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성령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참고. 마 28:18-20; 눅 24:48-49; 요 15:26-27; 행 1:8). 교회는 성령과 함께,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존재로 세상에 보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주신 선교적 맥락을 놓치면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 됨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의 하나 됨을 깨고, 분열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교회는 깨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자리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빚어지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볼 때, 세상은 또한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요 13:35).